

飛上을 향한 도시 빈민층의 분투

— 쑤통(蘇童)의 《蛇爲甚麻會飛》 속 인물들의 욕망과 좌절 양상을 중심으로 *

장윤선 **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쑤통, 현실을 직시하다
 - III. 도시 빈민층의 생존풍경
 - 1. 도시의 虛像과 유혹
 - 2. 飛上을 향한 욕망과 좌절
 - 3. 뱀, 욕망 및 인성의 變異
 - IV. 나오며
-

I. 들어가며

주지하다시피 개혁·개방 이전의 집단주의와 평등주의가 강조되던 체제에서 중국 인들은 빈곤했으며 富의 축적은 금기시되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주의 정책은 그동안 국가 및 집단 소유에 억눌려있던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해방시키며, 이익 창출과 부의 축적을 적극 허용한다. 가난에서 탈피해 돈의 중요성과 가치에 새롭게 눈을 뜬 중국인들이 돈벌이를 위해 대거 도시로 몰려들면서 중국사회는 극심한 진통을 겪게 된다. 특히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는 중국인들의 세속적 욕망과 집착은 사회적으로 황금만능주의 사상과 배금주의 풍조 확산을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지난 30년에 걸쳐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중국은 외형적으로 화려한 경제 성적표를 갖게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야기한 물신주의, 비인간화와 개인 소외, 심각한 양극화 현상 등등 각종 사회적 병폐현상의 난제를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배재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안게 되었다. 이를 둘러싸고 각계각층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문인들 또한 이런 특수한 사회문화적 콘텍스트를 간과하지 않고, 자신들이 목도한 사회 단면들을 반영하고 비판하는 작품들을 창작하게 된다.

그 가운데 작가 쑤통의 현실 인식과 문학적 변신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쑤통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야기한 폐단과 문제점 그리고 자본주의가 증폭시킨 인간의 욕망을 예리한 시선으로 포착해낸다.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달콤한 유혹에 이끌려 도시의 허상만을 쫓는 사람들, 쑤통의 시선은 그들에게 멈춘다. 특히 쑤통은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밀려나 밀바닥 인생을 사는 도시 빈민층의 생존 모습을 예의주시한다. 쑤통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도시는 마치 모든 이들에게는 꿈과 기회의 공간이요 풍요와 부의 공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웃사이더인 빈민층에게 여전히 결핍과 빈곤의 공간이자 차별과 배척의 공간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도시의 화려한 유혹에 현혹당하고 욕망추구와 현실의 간극사이에서 분투하다, 결국 스스로를 파멸과 몰락의 길로 내몬다. 2002년에 출간된 장편소설 《蛇爲甚麻會飛》는 현대화,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도시 공간 속에서 성공과 부를 향한 비상을 꿈꾸다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황폐해진 인간군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쑤통은 각박하고 냉혹한 도시의 실체와 그 속에서 그들이 맞닥뜨렸던 쓰라린 좌절, 절망, 분노, 공허함 까지 특유의 섬세함과 감수성으로 꿰뚫어보게 그려낸다.

본문에서 필자는 쑤통이 목도한 당대의 사회·문화적 현실이 작품 속에서 그의 독특한 문학적 상상력과 만나 어떻게 재현되는지, 빈민층의 황폐한 생존 풍경과 상처 입은 내면은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작품 속 다양한 인간군상의 욕망과 좌절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군상의 모습을 그려내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이 작품이 쑤통의 이전 작품과 달리 어떤 새로운 모습과 의미를 갖는지도 살펴보고자한다.¹⁾

1) 그동안 쑤통과 관련한 많은 연구논문이 나왔지만 《蛇爲甚麻會飛》를 직접적 연구대상으로 삼은 논문으로는 아직까지 박남용·이혁의 〈쑤통 소설에 나타난 하층민 형상과 뱀의 이미지 - 「뱀이 왜 날까(蛇爲甚麻會飛)」를 중심으로〉가 유일하다. 기타 연구가들이 쑤통을 연구하며 부분적으로 이 작품을 언급한 경우는 있지만, 이 논문은 온전히 《蛇爲甚麻會飛》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종합적인 고찰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들은 현대도시 문명 속 삶의 일상적 욕망, 하층민들의 형상, 뱀의 이미지를 다루고 있다. 참고, 박남용·이혁 〈쑤통 소설에 나타난 하층민 형상과 뱀의 이미지 - 「뱀이 왜 날까

II. 쑤통, 현실을 직시하다

《蛇爲甚麻會飛》는 쑤통이 《菩薩蠻》 이후 5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세상 밖으로 선보인 장편소설 작품이다. 이 작품을 일컬어 「내 자신을 수술대로 옮기고 스스로에게 대수술을 가했다(我確實是把自己搬上了手術臺, 給自己動了一個大手術)」²⁾라고 창작심정을 밝히듯, 이 작품은 쑤통의 창작 생애에 또 한 번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작품이다.

한동안 문단의 주목과 명성을 받다가, 다시 긴 시간 공백기에 있었던 쑤통은 최근 신작 장편소설을 완성했다. 줄곧 신역사를 제재로 한 소설 창작에 뛰어나 '신역사소설의 귀재'로 칭송받던 쑤통이 이번에는 현실로 시선을 돌려, 처음으로 참담한 인생을 직시했다. 현실을 제재로 한 이번 작품에서 쑤통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보잘것없는 하층 인물들의 운명을 형상화해낸다.(曾經大紅大紫, 也曾經一度沉寂的蘇童, 最近完成了他的新長篇小說。一向擅長寫歷史題材被譽爲是“新歷史小說干將”的蘇童, 次此將目光轉向了現實, 首次直面慘淡人生。在這部現實題材的新長篇中, 蘇童塑造了一群被社會拋棄的小人物的命運。)³⁾

인용문의 평처럼 이전까지 쑤통의 창작 경향이 주로 현실과 거리를 둔 허구적 역사나 과거의 현실, 가상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 창작활동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蛇爲甚麻會飛》를 계기로 쑤통은 현실로 관심을 돌리고 현실 속 이야기를 써내려가는데 치중한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쑤통으로 하여금 예전의 창작경향에서 벗어나 현실로 문학적 관심과 시선을 돌리게 하였을까. 이에 대해 그는 「나이가 나로 하여금 인생을 마주하도록 했다(年齡讓我直面人生)」란 말로 자신의 문학적 변신과 창작관의 변화를 설명한다. 그의 부연설명에 따르면,

나는 나의 창작에 뚜렷한 노선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시간적으로는 (현재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시선은 (현실과) 유리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실제

(《蛇爲甚麻會飛》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제39호, 2010.

2) 蘇童、徐穎 〈蘇童時代又回來了?〉, 汪政、何平 編 《蘇童研究資料》(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7), 139쪽.

3) 위의 책, 138쪽.

적이 되는 것이다. 이 나이에 이르니 나는 더욱 현실에 발을 붙이고 참담한 인생을 마주할 것이다.(我個人覺得, 我的創作還是有一個清晰的線路, 也即是說, 時間上離現在越來越近, 目光上也越來越不飄浮, 越來越務實。到了我這個年齡, 勢必會愈加腳踏實地, 直面慘淡人生。)4)

쑤통의 이 말은 이전에는 창작 시선이 현실과 동떨어졌었지만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면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현실로 향하고, 점점 현실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것으로, 그의 변화된 창작관과 창작태도를 보여준다. 그의 말처럼 현실에 발을 디디고 현실과 밀착하게 되면서 쑤통의 문학세계와 창작경향은 이전과 달리 사실성에 치중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관찰한 세상 풍경과 사람들의 일상생활 이야기를 작품으로 그려낸다. 《蛇爲甚麻會飛》은 바로 쑤통의 변화된 창작관과 창작태도의 산물이다. 특히 쑤통은 「루쉰(魯迅)선생은 우리들에게 참담한 인생을 마주하도록 가르쳤다(魯迅先生教過我們: 直面慘淡的人生)」라고 말하며, 《蛇爲甚麻會飛》은 이 가르침에 따라 참담한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해낸 작품이라고 천명한다.5)

밀레니엄을 하루 앞두고 설을 쇠기 위해 서둘러 기차역으로 향한 전날 밤, 나는 광장에서 문득 내 자신이 수많은 인파의 물결 한 가운데 있음을 발견했다. 수천 명의 농민공들은 찬바람을 맞으며 광장 공터에 모여, 공사현장으로 향하는 환승차를 기다리거나 혹은 귀향길로 향하는 복적대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일부의 남녀들은 이유 없이 농민공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나는 인파의 물결 속을 지나며 삶에 찌든 무수한 낯선 이들의 모습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은 호의나 적의도 없이 그저 무감각했다. 어떤 이는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편안하게 코를 골며 즐기고, 어떤 이는 바닥에 신문지를 깔 채 포커를 치고, 어떤 이는 멍하니 앉아서 기차역 주변의 밀레니엄을 경축하는 네온사인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손톱깎이가 없는지 이빨로 자신의 긴 손톱을 정리하고, 어떤 이는 나처럼 사람들 무리를 가로질러 다니고 있었다. 그들의 은밀한 표정과 낮게 깔린 목소리는 뭔가 불법적인 물건을 팔고다님을 짐작케 했다. 나는 재빨리 내 자신에게 너는 지금 참담한 인생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어 라고, 자기 암시를 걸었다.(千禧年前的一個

4) 위의 책, 139쪽.

5) 蘇童 〈拳擊與蛇—《蛇爲甚麻會飛》後記〉, 《蛇爲甚麻會飛》(昆明, 雲南人民出版社, 2002), 264쪽.

夜晚我趕火車回老家去過年，在車站廣場上我突然發現自己陷于一個人體的沼澤中，數以千計的外來民工在寒風中集結在廣場空地上，等待着一次前往新工地的中轉，或者是通往回家之路的擁擠的火車。另一些男女則不明不白地游蕩在民工兄弟周圍，我在人體凭空造就的九曲小徑裏穿行，看見無數陌生的飽經風霜的臉，看見無數雙麻木的既無友善也無敵意的眼睛，有人在寒風中安然入睡并打起了呼嚕，有人在地上鋪開報紙打撲克，有人傻坐着仰望火車站四周爲了迎接千禧年的灯箱霓紅，有人發現自己指甲長了，沒帶指甲刀，便用牙齒修理自己的指甲，有人則像我一樣是在人堆裏穿行，他們鬼鬼祟祟的表情和壓低了的聲音顯示他們在兜售一樣不宜公開的東西，而我開始聰明伶俐地暗示自己，你是穿行在慘淡的人生中。)6)

인용문은 《蛇爲甚麻會飛》의 창작 후기 중의 한 대목으로 밀레니엄을 앞둔 전야에 기차역 광장에서 작가가 실제 목도한 하층민의 실상이 창작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쑤통은 마치 화가가 인물의 특징을 포착하여 스케치해 나가듯, 인과 속 각양각색 사람들의 행색과 움직임, 동작을 재빨리 훑어낸다.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으로 떠도는 농민공,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광장 앞을 못 떠나는 노숙자들, 인과속을 헤집고 다니며 불법적인 판매를 일삼는 사람들, 역 광장을 정처 없이 배회하는 사람들 등. 엄동설한에 생계를 위해 기차역 광장에 모여 있는 하층민들의 모습은 쑤통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주목할 것은 당시 중국사회는 새로운 천 년의 시작을 앞두고 온통 장밋빛 희망과 기대, 흥분으로 들떠있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 한 켠 에는 여전히 추위에 떨며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소외된 빈민층 또한 존재한다. 역 광장에 모여 있는 하층민들을 통해, 쑤통은 사회에서 밀려나고 소외된 빈민층의 암울한 생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특히 풍상에 찌든 이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초점 없는 공허한 눈빛에서 쑤통은 비로소 루쉰이 말한 '참담한 삶'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쑤통은 본인이 말한바와 같이 「자신을 수술대로 옮기고 스스로에게 대수술을 가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몸소 직시한 도시 공간 속 빈민층의 참담한 현실과 그들의 신산한 삶을 작품으로 형상화해낸다.

6) 위의 책, 264-265쪽.

Ⅲ. 도시 빈민층의 생존풍경

1. 도시의 虛像과 유혹

소설은 장맛비가 내리는 2000년 6월의 어느 날, 금발머리 여자(이하 금발머리로 약칭)가 기차에서 내려 역 광장에 위치한 여관에 투숙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쭈뚱에 따르면 원래 이 작품의 제목은 《火車站的金發女郎》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기차역'과 '금발머리'가 작품에서 매우 큰 비중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의 모든 서사는 주로 기차역 광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금발머리는 긴장과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자극제가 되어, 인물들과 얽히고설킨 관계망을 형성하며 서사 전개의 구심점이 된다.

나는 (작품에서) 기차역을 등장시켰고, 기차역이 사회의 축소판이 되길 바랐다. 기차역을 설정한데에는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물론 나는 상징적 의미가 농후한 것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다. 기차역의 생활 형태는 사람들이 오고가는 곳으로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마침 쓰려던 것이 원래부터 삼거리 열여덟 골목에 사는 인물들이다. 그들의 생활은 상대적으로 정적이다. 따라서 나는 그들을 자극시켜 활기를 띠게 할, 그들과 전혀 다른 유동성이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 작품의 구조상 금발머리의 가장 큰 역할은 그녀가 작품 속 다른 인물들을 자극시켜 활기를 띠게 만드는 세포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나는 그녀가 모든 인물들과 대면하도록 설정했다.(我寫的是一個火車站, 我希望這個火車站是整個社會的縮影。我設置這樣一個火車站, 多少有象徵意味, 盡管我不太喜歡象徵意味太濃的東西。火車站的生活形態是流動的, 人來人往, 但我寫的恰好是原來三街十八巷的人物, 他們的生活是相對靜止的, 所以我需要一個與他們截然不同的、流動性大的人物來激活他們。金發女孩從結構上起的最大的作用在於她是一個細胞, 激活書中所有其他人物的細胞。事實上, 我也安排她與所有人物都打了照面。)7)

작가의 말대로 기차역이란 장소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유동성'이다. 기차역은 도시와 도시 및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다양한 사람과 화물의 유입 및 이동이 일

7) 蘇童、王宏圖《蘇童、王宏圖對話錄》(蘇州, 蘇州大學出版社, 2003), 177쪽.

어나는 유동적인 공간이자 열린 공간이다. 「기차역이 사회의 축소판이 되길 바랬다」라는 쑤통의 의미심장한 발언은 당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처해있던 중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쑤통이 작품을 구상하고 집필을 시작할 2000년도의 중국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도시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중이었으며, 중국은 역사상 유래 없는 단기간에 급속도로 가장 빠른 도시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쑤통이 작품에서 서사의 핵심 공간이자 배경으로 삼고 있는 기차역은 당시 중국사회에 몰아닥친 도시화 열풍을 투영한 상징적 공간으로, 역사의 축소판이자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현대화, 산업화의 바람을 타고 가속화된 도시의 개발과 발전은 낡은 도시에서 신도시로의 재편 및 도시경관의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를 반영하듯 작품에서도 낙후되고 낡았던 기차역과 그 주변 일대가 개발과 변화의 급류를 타고 새롭게 탈바꿈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기차역을 중심으로 뻗어 있던 세거리 열여덟 개의 낡은 시가지는 해체되고, 현대적이고 질서정연하게 구획 설비된 신시가지가 형성된다. 그리고 기차역 광장 중앙엔 거대한 위용을 뽐내는 신년맞이 시계탑이 설치되고, 역 광장을 중심으로 호텔 급 숙박시설, 레스토랑과 음식점, 쇼핑몰, 영화관, 미용숍, 안마숍 등의 각종 다양한 편의시설과 여가시설을 갖춘 현대적 건물이 새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한다. 이렇게 현대화되고 세련된 외양으로 탈바꿈한 도시는 마치 낙원과 같은 곳으로 인식되며 전 지역에서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금발머리가 기차역에 등장하는 첫 장면은 바로 도시에 대한 꿈과 장밋빛 희망을 안고, ‘天南海北’의 각 도시로 물려든 외지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투영한다.⁸⁾ 특히 쑤통은 도시가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유혹하는 모습을 ‘아름다운 성(美麗城)’과 그 공간에서 일하는 도시인들의 모습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8) 중국어에 ‘天南海北都愿去, 就是不去新西蘭’이란 말이 있다. 여기서 ‘天南海北’과 ‘新西蘭’은 각각 天津, 南京, 上海, 北京, 新疆, 西藏, 蘭州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문장을 번역하면 ‘천진, 남경, 상해, 북경은 가고 싶지만 신강, 서장, 난주에는 가고 싶지 않다’이다. 원래 이 말은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농촌으로 下放되는 지식 청년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말이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현대화, 도시화 열풍을 타고 도시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한 번 유행처럼 번지게 된다. <http://www.rcgus.com/witkid2013/1293751.html>, http://blog.sina.com.cn/s/blog_6e3914e60101c8qi.html 참고.

아름다운 성은 재스민 향기로 내음이 진동했는데, 이것은 매일 아침 환경미화원이 분사하는 공기청정제의 향기였다. 복도에는 어디선가 들어왔지만 무슨 음악인지는 알 수 없는, 귀에 낯익은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美麗城裏瀰漫着一股茉莉花的香氣, 是每天早晨清潔工噴灑的空氣清新劑的香味。走廊裏回蕩着很耳熟的背景音樂, 你一定在哪裏聽過的, 却說不出那是甚麻音樂。)9)

아름다운 성에 있는 두 대의 엘리베이터는 아침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자와 트렌디한 복장의 여성들을 도시의 상공, 구름과 맞닿은 사무실로 바쁘게 오르락내리락 이동시켰다.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젊은 엘리트들은 검은색이나 갈색의 서류가방을 끼고, 여름에 유행하는 새파란 치마 정장과 가죽샌들을 신고 엘리베이터 안에 질서정연하게 타고 있었다. 더얼쓰 회사의 영업담당인 미스 샬아가 대변하는 아름다운 성의 화이트칼라는 그들의 문화, 교양, 매너, 심지어 메이크업까지 모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스 샬아가 조용히 엘리베이터의 붉은색 신호를 쳐다보고 있을 때, 금발머리는 오히려 미스 샬아의 손대지 않은 듯 내추럴한 머리와 그녀의 귀티 나는 일자 스커트를 쳐다봤다. 그리고 마치 민들레가 목단을 보며 한탄을 하듯 금발머리는 엘리베이터 귀통이에 서서, 자신의 초미니 스커트를 끌어내려 허벅지를 덮으려 했다. 그러나 스커트가 워낙 짧아서 그녀의 튀어나온 두 개의 무릎과 허벅지는 여전히 그대로 노출될 뿐이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녀의 다리를 본격적으로 비교한다면 그녀가 우려한 문제점이 그대로 부각될 것이다. 엘리베이터안의 사람들과 기차역 밖 부류의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르다.(早晨美麗城裏的兩臺電梯忙碌地升降着, 把一些衣冠楚楚的男人和穿流行色的女孩子送到城市的上空, 把他們送到雲端裏的辦公室, 這些習慣了高高在上的年輕而知識化的一代人, 他們夾着黑色或棕色的公文包, 穿着這個夏季流行的天藍色西裝套裙和坡跟皮涼鞋, 錯落有致地站在電梯裏, 以德爾斯公司的營銷主管蕭小姐爲代表的美麗城白領, 以他們的文化、教養、個人風度甚至化妝術征服了一個人的目光, 當蕭小姐她們安靜地仰望着電梯的紅色指示信號時, 金發女孩却在打量蕭小姐自然的看似未經修理的髮型, 打量她的雍容華貴的直統裙, 蒲公英遇見牡丹一般會自嘆弗如, 金發女孩縮在電梯一角, 把超短牛仔裙向下面拽了一點, 讓裙沿遮住大腿, 可牛仔裙天生是短的, 金發女孩的兩個圓鼓鼓的膝蓋和小部分大腿仍然暴露在外面, 如果有人專事比較女孩子的腿, 金發女孩所憂慮的問題便暴露出來了, 可是電梯裏的這一代人與火車站出站口的那批人不一樣。)10)

9) 蘇童 《蛇爲甚麻會飛》(昆明, 雲南人民出版社, 2002), 32쪽.

10) 위의 책, 134쪽.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아름다운 성은 상업화된 자본주의적 물질문명을 상징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소로 도시 문화를 주도하고 전파하는 창구이자, 사람들을 현혹하고 욕망을 증폭시키는 원천이자 배경이 된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같은 도시문화의 자극과 욕망의 부추김이다. 로비에 들어서면 순간 공기청정제의 상쾌한 제스민 향기가 후각을 자극하고, 익숙하고 감미로운 멜로디가 청각을 자극한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성에 대해 우아하고 청결하며 안락한 이미지를 생성케 한다. 여기에 더할수 회사원들의 세련되고 화려한 용모와 지적인 모습은 시각적으로 가장 강렬한 자극을 선사하며, 사람들의 뇌리에 아름다운 성의 고급스럽고 화려한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이처럼 아름다운 성으로 대변되는 도시는 화려하고 세련된 공간이자 성공과 부를 이루게 해 줄 꿈과 희망의 공간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에 대한 환상과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도시의 유혹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으며, 사람들은 마치 자석이라도 이끌리듯 도시의 불빛을 향해 다가오고 도시에 대한 욕망을 갈구한다. 상술한 두 번째 인용문의 금발머리의 모습은 이를 재확인 시켜준다. 금발머리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당당하고 지적이며 세련된 더얼쓰 사람들의 모습에 자극받고 깊이 매혹된다. 더얼쓰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들에 대한 선망은 그녀로 하여금 그들의 세계로 진입하고 싶다는 내적 욕망을 推動한다. 그녀에게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문화와 도시적인 삶은 그녀가 반드시 향유해야 할 욕망의 대상이자 절대적 가치로 각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장 말미에서 「엘리베이터안의 이 사람들과 기차역 밖 부류의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노골적으로 단정 짓듯, 아름다운 성안에서 생활하는 주류층 도시인들은 기차역 밖으로 내몰린 소외되고 가진 것 없는 비주류 빈민층들의 진입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즉 도시인들은 스스로를 그들과 다른 존재로 자처하고 구별 지으며, 빈민층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한다.

이처럼 도시는 물질적 풍요와 부를 보장해주는 파라다이스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화려한 불빛으로 위장한 도시의 허상이자 미끼일 뿐이다.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는 경제적 약자인 빈민층에게는 그저 달콤한 그림의 떡과 같은 허상일 뿐이며, 오직 강자만이 부와 풍요를 독식하는 비정한 공간이다. 생존 경쟁의 각축장인 도시에서 경제적 약자이자 사회적 약자인 빈민층은 결핍과 차별을 재확인하며, 결국 소외되

고 배제될 뿐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도시의 허상에 현혹되고 자본주의가 자극하고 증폭시킨 욕망의 굴레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으며, 자신이 파멸과 낙락으로 추락하는 줄도 모른 채 성공과 부를 향한 비상의 날개 짓을 멈추지 않는다.

2. 飛上을 향한 욕망과 좌절

《蛇爲甚麻會飛》은 다양한 인물군상이 등장한다. 주요인물로는 동북지역에서 일 자리를 찾아 도시로 온 금발머리(金發女孩), 기차역 광장 여관에서 근무하는 령옌(冷燕)과 슈홍(修紅), 그리고 사채업자 하수인 커위안(克淵)과 그의 친구 량젠(梁堅) 등이 있다. 금발머리가 도시화 열풍을 타고 도시 밖에서 도시로 들어온 외지인 이라면, 나머지 인물들은 도시 주변부에서 살다 도시화 열풍으로 인해 줄지에 신개 발지역의 도시인으로 편입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 도시에서 소외된 계층이자 주변적 존재인 빈민층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욕망',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욕망이다. 쑤통은 도시화 열풍 속에 기차역 일대가 개발되고 변화해지면서 도시 공간 속을 파고드는 자본주의 사상과 풍조를 예의주시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물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욕망이 어떻게 자신과 타인을 몰락과 파멸의 길로 이끄는지를 인물군상의 생존양상을 통해서 보여준다. 우선 금발머리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금발머리는 도시에 대한 환상과 꿈을 안고 도시로 왔지만, 외면에 감추어진 도시의 추악한 실상을 경험하며 동요하고 좌절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자신을 모델로 시켜주겠다는 남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무리한 성형수술까지 감행하며 이곳으로 왔다. 꿈이 모델이며 그녀가 성형수술을 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델이라는 직업은 이미지를 통해서 대중의 소비 욕망을 부추기고 자극하며, 아름다운 외모는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경쟁력이자 자본이다. 특히 금발머리는 성형수술을 통해서 영화배우 장만위와 같은 얼굴을 갖길 희망한다. 누군가의 외모를 동경하고 누군가의 모습으로 성형수술을 한다는 것은 소위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으로, 이것은 자신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즉 성형을 통한 미의 절대적 추구는 상업화된 자본주의적 욕망이 야기한 외모 지상주의의 왜곡된 표현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외모마저 바꾸고 이름, 출신지까지

속이며 도시로 입성한다. 그리고 그녀는 아름다운 성에서 일하는 도시 사람들의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들과 같은 도시인이 되어 도시문화를 향유할 수 있길 적극 갈망한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촛뜨기 취급하는 도시인들의 냉대와 조소, 그리고 매춘부 취급하는 못 남자들의 검은 욕망일 뿐이다. 모델의 꿈이 좌절된 후에도 그녀는 도시에 대한 미련으로 도시를 배회하며 정착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모색한다. 그러나 그녀가 발붙이고 정착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녀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곤 유흥업소일 뿐이다. 결국 그녀는 현실의 장벽 앞에 굴복하고 퇴폐 이발소의 9호 아가씨로 전락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성형 부작용으로 인해 좌절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그녀는 씩씩히 도시를 떠난다.

금발머리의 좌절과 몰락은 도시에 대한 환상과 헛된 욕망 속에 개인의 꿈과 존엄성이 적나라하게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성형 부작용으로 인한 괴사된 얼굴은 왜곡된 자본주의적 욕망으로 인해 결국 자신의 모습마저 잃고 마는 '자아'의 상실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를 떠나며 「난 안 들을 거예요. 그건 당신들의 21세기 말이 왜중시계잖아요. 당신들이나 들어요. 나대신 당신들이나 들어요(我不聽了, 那是你們的世紀鐘, 你們聽吧, 你們替我聽吧)」 이 말 속에서 외지인이자 이방인, 주변인으로서 겪어야만 했던 내면의 고독과 소외감을 엿볼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은 그들과 섞일 수 없으며 도시인이 될 수 없었음을 자조적으로 토로하는 그녀의 뉘그러는 그녀와 도시인 사이에 가로놓인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결국 신년맞이 종소리조차 못 듣고 도피하듯 떠나는 그녀에게는 새로운 세기의 희망과 꿈마저 좌절되고 있다. 도시는 외지의 이방인에겐 21세기를 맞이하고 누릴 기회와 희망조차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금발머리는 그렇게 영영 도시 속으로 편입될 수 없는 영원한 주변인이자 '이방인'인 것이다. 그렇기에 쭈통 또한 금발머리를 가리켜 도시에 왔다가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뿌리 없는 인물이라고 말하며, 금발머리를 통해서 뿌리 없는 사람들의 애환과 도시가 가져다 준 하층민이 뿌리박기 힘든 삶에 대해 표현하고 싶었다고 토로한 것이다.¹¹⁾

남자 주인공 커위안은 사채업자인 친구 더쥬(德群)의 밑에서 일하며 채무자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내는 일을 하는 도시의 무법자이며 쓰레기이다. 커위안이란 인

11) <http://cafe.naver.com/mhdn/1147> (진중환 소설, 유쾌한 작가 — 중국 소설가 '쭈통'인터뷰) 참고.

물이 도시에서 생존하는 방식은 '폭력'과 '돈'에 대한 굴종이다. 「돈 있는 사람은 때릴 수도 없어. 돈이 그를 든든히 받쳐 주니까. 어쨌든 돈이 없으면 사는 게 짜증나고 귀찮아. 돈만 있으면 뭐든지 오케이야(有錢人揍不得, 錢給他撐腰。反正沒錢, 正活得不耐煩。有錢甚麻都行)」 그가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이 말 속에는 돈에 대한 왜곡된 욕망과 맹신이 깊이 각인되어 있다. 돈만 있으면 뭐든 된다는 사고는 결국 돈이 절대가치이자 절대자이며,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돈의 노예로 종속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커위안은 누구보다 돈의 힘에 순응하며 돈의 논리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그는 돈 없는 가난한 자나 채무자들 앞에선 강자로 군림하며 이들을 폭력으로 협박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 반면 돈 많고 힘 있는 부자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몸을 낮추며 복종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일례로 커위안은 친구이자 사장인 더천의 무시와 모욕을 꺾고 참으며 더천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한다. 그는 더천의 막강한 재력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의 생존 또한 더천에게 달려있음을 잘 안다. 그가 아름다운 성을 제 집인 양 드나들고 상류층이 향유하는 고급 레스토랑, 멋진 양복과 신발을 걸치고 사교클럽을 다니며 진정한 도시인이자 주류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 것은, 더천과 같은 돈 있는 자들에게 기생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돈의 위세와 권력 앞에 고귀해야 할 인간의 이성은 마비되고 정신은 비굴해지고 천해진다. 결국 도시의 무법자처럼 활보하던 커위안은 한동네 친구였던 량젠마저 자살로 몰아넣고 평다린마저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그는 21세기를 하루 앞두고 범죄자가 되어 도망치듯 도시를 떠난다.

커위안의 몰락에서 우리는 돈이라는 거대한 권력과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자신은 물론 결국 타인마저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비극적인 말로를 목도한다. 특히 도망치듯 떠나는 커위안의 마지막 장면을 쭈뼛은 이렇게 묘사한다. 「그는 지금 자신이 선반위의 트렁크를 따라 베이징으로 갈 것 이라 생각했다. 그는 방법이 없었다. 그저 트렁크를 따라 베이징으로 가는 수밖에(他覺得自己現在跟隨着行李架上的箱子, 箱子到北京去, 他沒辦法, 只好跟着箱子, 也到北京去)」 여기서 '트렁크'는 커위안의 삶이 어딘가에 정착되지 못하고 트렁크처럼 평생 떠돌이 유랑자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숙명임을 은유한다. 그리고 이 같은 숙명은 그를 영원토록 비주류인 주변인물로 살 수 밖에 없도록 옥아매었기에,

숙명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그의 노력과 분투는 허사일 뿐이다. 더욱이 그는 돈의, 돈에 의한, 돈을 위해서라면 힘없고 돈 없는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도덕한 일마저 서슴없이 저지르는 인간 망종이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도시에서 환영받으며 살 곳은 없다. 쓰레기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 폐기처분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커위안의 몰락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방치되었다가, 결국 폐기처분되어 방출되는 쓰레기 신세와도 같다. 따라서 우리는 왜 쑤통이 아래에서 '邊緣人物'과 '人渣'란 말로 커위안의 인물특성을 개괄해내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으며, 또한 이 두 개의 키워드에 담긴 커위안의 숙명적인 비극과 몰락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커위안은 비주류 주변인물이다. 그의 주변성은 운명이 강제로 그를 몰락시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자각하지 못한 채, 자신은 필사의 노력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여기며 남몰래 의기양양해한다. 그는 모두가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로 그에겐 문화적인 부호는 없다. 그는 문학사에 있어왔던 인물들과 달리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커위안은 그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인간쓰레기로, 특별한 인간쓰레기이다. 사회에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회로부터 홀시 받고 방치된다.(克淵是一個邊緣人物。他的邊緣在於命運迫使他沉淪，而他自己不覺，以為自己在發憤圖強，在向上爬，暗自得意。這是一個大家都不關注的人，身上沒有文化符號，他不同于文學史的任何一個人物，他甚麻都不是。克淵是我們通常所說的人渣，是一個特別的人渣。社會上有很多這樣的人，被社會忽略了。)12)

두 주인공 외에 도시의 허상에 현혹되고 자본주의적 욕망으로 인해 좌초하고 파멸에 이르는 인물로 령옌, 슈홍, 량젠 등이 있다. 그 중 령옌은 누구보다도 성공에 대한 욕망과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인물이다. 그녀는 복권판매소의 시아오천과 관계를 맺고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성공과 야망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재력가인 식당 사장을 유혹해서 뱀 식당의 영업 아가씨로 취직한다. 그녀에겐 오직 돈이 목적이요, 돈을 위해서라면 육체 따위는 돈을 벌 수단이나 교환가치일 뿐이다. 뱀 식당에서의 근무는 그녀에게 역 광장 여관에서 받는 급여보다 많은 돈을 만

12) 蘇童、徐穎 〈蘇童時代又回來了?〉, 汪政、何平 編 《蘇童研究資料》(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7), 140쪽.

지게 해졌고, 돈을 벌수록 돈에 대한 욕망과 집착은 더더욱 증폭되어진다. 오직 돈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추구가 생존 철칙이 되어 버린 그녀는 돈 때문에 량젠과 이혼했다, 돈독이 올랐다, 몸을 받쳤다 등등의 각종 세간의 손가락질이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윤은 곧 돈 아니겠어(利潤不就是錢嗎)」, 「범법행위만 저지르지 않으면 무슨 돈이든 벌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돈이든 간에 과감히 벌기만하면 되는 거라구(只要不犯法, 甚麻錢都要去掙, 甚麻錢都要敢掙)」라고 항변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거침없이 돈의 노예가 되어간다.

령옌과 같은 인물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다. 과거 평온한 사회 속에서 그녀 역시 평온한 생활을 영위했다. 그러나 일단 생활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면, 그들은 급격히 변화한다. 그들은 정해진 운명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만의 그 어떤 것에 의존해 무언가를 얻어내려 한다. 그들은 자신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히 스스로를 다그치고 몰아붙인다. 영원히 위를 향해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오히려 몰락하고 있는 것이다.(冷燕這個人物, 大家見得很多了。在過去的時代中, 在平穩的社會中, 她們過着平穩的生活。一旦生活發生急劇變化, 她們就會變化。她們永遠不服命運的安排, 希望靠自己的某方面追求, 來獲得甚麻。她們永遠要折騰, 不滿足于自己, 看似永遠向上, 事實上却在沉淪。)¹³⁾

령옌에 대한 쉰훙의 지적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세상의 급격한 변화를 감지한 그녀는 자신의 안일하고 정체된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시류를 틈타 자신 또한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는 야망을 품는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위해 자신의 몸을 교환수단으로 사용한다.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쟁취하지만 그녀의 만족과 욕심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다그치고 몰아붙인다. 자신이 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락의 늪으로 함몰되는지도 모른 채, 그녀의 욕망과 탐욕은 끝없이 진행된다.

쉰훙은 역 광장 여관의 객실담당 직원이다. 령옌이 성공에 대한 야망과 욕심으로 아득바득거리며 독기를 품는 것과 달리, 쉰훙은 정해진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규범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인물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

13) 위의 책, 141-142쪽.

만 그녀도 물질에 대한 보편적 욕망을 갖고 있는 엄연한 욕망의 주체이다. 「그렇게 많은 복권을 샀었는데 제일 많이 당첨됐던 게 6 등이야. 복권에 돈을 꽤 썼지(我買了那麻多彩票, 最多中個六等獎, 不少錢呢)」가 말해주듯, 복권은 그녀의 욕망을 자극하고 삶에 대한 에너지를 증폭시켜주는 대상이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산 기념 복권에서 그녀는 운 좋게도 8등에 당첨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안타깝게도 비극적 운명의 불행한 시초가 되고 만다. 당첨된 수많은 사람들이 경품을 먼저 받았다고 앞 다투어 돌진하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하고, 아비규환의 이수라장 속에서 슈홍은 간신히 빠져나온다. 그날의 공포와 충격은 그녀의 정신을 앗아가고, 결국 정신이상자가 된 그녀는 정신병동에 수감된다. 쑤통은 슈홍이라는 인물 형상에 담긴 특수한 의미와 그 비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다른 여성 슈홍은 이 시대의 특수한 역사가 만들어낸 변종이다. 그녀는 틀 안에서 규율과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기차역 여관의) 미소 아가씨로 선발된 것이 그녀의 유일한 성공일 정도로 그녀는 참 불쌍하다. 삶에 대한 그녀의 바람은 많지만 그녀는 결국 또 인생의 좌절을 맛보고 말았다. 복권을 추첨할 때 광분한 인파에 깔려 그녀는 죽을 뻔했다. 인생에 큰 욕심 없는 그녀였건만, 결국 그녀는 오히려 인생의 가장 큰 좌절을 맛보고 말았다.(另一個女性修紅, 則是這個時代的特有歷史造成的一個怪胎。她生活在套子中, 一切都循規蹈矩, 當上微笑小姐是她唯一的成功, 很可憐。她對生活的要求只有那麻多, 但最後還是受到生活的打擊, 在摸彩時差點給瘋狂的人流踩死。這個對生活沒有太大要求的人, 最後却受到生活最大的打擊。)14)

쑤통이 슈홍을 이 시대의 특수한 역사가 만들어낸 '怪胎' 즉 변종이라고 말하는 대목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쑤통은 평범하고 큰 욕심 없이 살던 슈홍이 복권이라는 상업화된 자본주의의 미끼를 물고 물질주의적 욕망의 굴레 속으로 점점 함몰되는 것을 통해, 슈홍 같은 인물을 물신주의와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변종 인간으로 정의 내린다. 그러나 이는 비단 슈홍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품 현장에 동참한 모든 군중들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경품을 먼저 타기위해 타인을 밀치고 또 저만 살기위해 타인을 짓밟고 혼자 탈출하는 모습에서, 일말의 죄책감이나 공동

14) 위의 책, 142쪽.

체 의식, 최소한의 인간성이나 인간미라곤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생존만이 우선시되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추악한 생존본성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밀레니엄을 앞둔 경품 현장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천국의 외양을 가장한 자본주의 사회의 지옥현장이자, 그 속에서 자신의 이득과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인간 군상은 당시 특수한 시대와 사회가 만들어낸 변종 인간들이다. 그러나 슈홍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대가 조장하고 부추긴 욕망의 직격탄을 맞은 희생자이기도 하다. 쉘통은 자본주의적 욕망으로 가득한 정글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오직 강자만일 뿐, 그 속에서 무수하게 도태되고 희생되는 약자의 모습을 슈홍의 예측치 못한 말로와 그 비극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슈홍은 당시 특수한 사회와 시대가 만들어낸 변종이자 동시에 희생자인 것이다.

슈홍이 정신이상이라는 비극적 말로를 보여준다면 량젠은 자살로 자신의 삶에 종지부를 찍는 불쌍한 영혼이다. 령옌의 전 남편이기도 한 그는 잘생긴 외모와 재력으로 도시의 화려한 삶과 쾌락을 만끽한 풍류남이다. 그러나 거듭되는 사업 실패와 유흥비로 가산을 탕진하고 무려 37만 위안이라는 빚을 지면서 즐지에 빚의 노예로 전락한다. 사채 빚에 허우적대는 량젠은 독촉을 하러 온 커위안에게 「어때, 37만 위안이면 내 목숨을 사고도 충분하겠지(怎麻樣, 37万, 够買我一條命)」라며, 차라리 자신을 죽여 달라고 사정한다. 자신의 목숨 값을 37만 위안과 等價시키며 죽음으로 빚을 갚겠다는 량젠의 이 말 속에서, 인간의 고귀한 생명까지도 교환과 계약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상품화된 소비 자본주의의 냉엄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세계담에서 추락하여 죽는 순간 '빚을 다 갚았다(清帳)'라고 외치는 량젠의 처절한 절규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상실되고 결국 자본 앞에 소중한 생명마저 희생되는 한 인간의 비극적인 말로를 보게 된다. 량젠의 삶과 죽음은 자본주의의 냉혹한 양면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상업화된 자본주의적 도시공간 속에서 부와 명성, 권력, 힘을 갖고 있는 자는 주인이 되고 당당한 주체로서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낙오자, 패배자가 되고, 심지어는 주체를 상실하고 物화된 객체의 신세로까지 전락된다. 량젠 역시 돈과 돈의 힘이 받쳐줄 때 도시의 달콤한 향락과 쾌락을 누리며, 어디에서나 대접을 받는 주인이고 삶의 주체적 존재였다. 그러나 돈과 권세가 고갈되자 용도 폐기처분되는 소모품처럼 가차 없이 내쳐졌고, 채무에 대한 교환 대가로 자신의 목숨마저도 지불하고 만 것이다.

3. 뱀, 욕망 및 인성의 變異

《蛇爲甚麻會飛》에는 실제 뱀이 등장한다. 뱀은 소설에서 비사실적인 요소로 현실과 꿈, 환영 속에서 다양하게 변주된 모습으로 소설 전반에 걸쳐 등장한다. 쑤통은 ‘소설에서 뱀은 점차 변해서 하나의 중요한 부호가 된다.(蛇在小說逐漸演變, 變成一種重要的符號)’¹⁵⁾라고 말한다. 이 말은 뱀이 다양한 은유와 상징, 암시를 담는 중요한 이미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글에서 쑤통은 ‘왜 뱀의 형상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명확하게 설명할 순 없다. 아마도 뱀의 형상이 의미심장하고, 문학 언어 속에 사용된 의미가 비교적 독특하기 때문이다.(至于爲甚麻要用蛇的形象, 我自己也說不清。可能我覺得‘蛇’比較意味深長, ‘蛇’在文學語言中意味是比較奇特的)’¹⁶⁾라고 말한다. 이 말은 뱀이라는 상징적 대상에 담겨 있는 문화적 코드(문화적 코드를 포함)에 대한 언급으로, 쑤통은 그동안 문학 외에 여러 예술 장르에서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적 코드를 구축해 온 뱀의 이미지를 주목한다. 그리고 이런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뱀의 이미지를 활용해 작품에서 욕망으로 일그러진 인물들 및 사회모습을 형상화하고, 욕망과 삶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 우리는 먼저 뱀에 담긴 다양한 문화적 코드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뱀에 부여된 사회문화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작품 속 인물군상 및 사회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개인적 욕망 및 사회적 욕망이 왜곡된 형태로 발현되어 가는지 고찰하기로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화, 전설, 민담, 종교,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와 영역에서 뱀은 다양한 문화코드를 갖는 매력적이고 신비스러운 대상으로 인식되어왔다. 그중에서 동·서양 문화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뱀의 문화코드로는 不死, 再生, 永生이 있다. 이는 뱀이 다른 동물과 달리 정기적으로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몸으로 변신하기 때문에, 뱀은 갱신과 재생의 영원한 삶을 산다고 믿었다. 기독교 문화권과 비기독교 문화권을 가르는 핵심도 바로 이 뱀의 재생과 영생이라는 코드에서 결정되는데, 성경에서는 인간이 뱀의 유혹으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불사의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죽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여, 뱀을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존재로 바

15) 위의 책, 143쪽.

16) 蘇童、王宏圖《蘇童、王宏圖對話錄》(蘇州, 蘇州大學出版社, 2003), 178쪽.

라본다. 그러나 바빌론의 옛 도상에는 인간에게 불사의 음식을 부여하는 뱀의 여신이 등장하는 것처럼, 원시신앙에 등장하는 뱀은 기독교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뱀을 재생과 영생의 존재로 바라본다.

여러 나라의 신화 속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뱀의 형상 중 하나가 바로 입으로 꼬리를 물어 하나의 원을 그리고 있는 뱀이다. 그리스어로 ‘꼬리를 삼키는 자’를 뜻하는 ‘우로보로스(Ouroboros)’는 우주의 무한성과 순환적인 성질을 나타낸다. 뱀의 머리가 꼬리를 물게 되면서 선은 하나의 원을 형성하고 이 둥근 원형 속에서 시작과 끝의 구분이 사라지며, 우주의 영원성이라는 철학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것을 불교적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의 원을 형상화하는 뱀은 생명의 輪廻를 상징하며, 이 속에는 탄생과 죽음을 끝없이 되풀이 하는 재생의 의미가 포함된다. 또 뱀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는데, 이는 뱀이 생물학적으로 난태생 동물로서 다른 동물과 비교해 많은 알과 새끼를 탄생시키는 다산성에서 기인한다. 뱀을 도상이나 각종 무늬로 사용하는데에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투사된 것이다. 이처럼 뱀의 문화코드 중 불사, 재생, 영생, 풍요, 번영의 이미지는 뱀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러나 사실 일반 대중들에게 각인된 뱀의 이미지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뱀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적 이미지의 형성과 투사는 기독교 문화의 영향이 크다. 기독교에선 뱀을 이브로 하여금 에덴동산 속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게 한 유혹과 타락, 죽음의 화신인 사탄으로 배척했다. 불교에서도 또한 뱀을 애욕과 유혹의 화신으로서 악업의 대상으로 인식한다.¹⁷⁾

17) 위 본문 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인식한다’ 까지 뱀에 담긴 사회·문화적 코드에 대한 상세한 고찰 부분은 《문화로 읽는 십이지신 이야기 — 뱀》 중 〈아시아의 상상력에 파리를 튼 뱀〉, 〈총론: 한중일 신화·전설 속의 뱀〉, 〈총론: 한중일의 뱀과 종교적 예식〉 중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참고, 이어령 책임편집 《문화로 읽는 십이지신 이야기 — 뱀》(서울, 열림원, 2011). 이외 참고할만한 텍스트로는 손진희 《뱀의 상징적 의미와 꿈에 나타난 뱀의 의미》(협성대학교 학위논문, 2010)이 있다. 이 논문은 고대의 여러 문헌들과 신화, 성서에서 뱀이 어떻게 등장하고 해석되어지는지를 고찰하며, 또 꿈속에 등장하는 뱀에 대한 심리학적인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박남용·이혁의 논문에도 동·서양이 바라보는 뱀의 이미지 차이를 통해 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박남용·이혁 〈쭈똥 소설에 나타난 하층민 형상과 뱀의 이미지 - ‘뱀이 왜 날까(蛇爲甚麻會飛)’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제39호, 2010.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적 코드가 내재되어 있으며, 시대에 따라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교차 반복, 혼합되면서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갖는 이미지를 탄생시켰다. 그렇다면 과연 쭈뼛이 그려내는 뱀의 모습은 어떤 사회문화적인 코드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뱀에 담긴 문화적 코드와 의미에 주목하면서, 작품 속 인물 군상의 삶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뱀과 관련한 다양한 상징과 은유적 의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뱀의 첫 등장은 공교롭게도 금발머리가 이 도시에 등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뱀들이 어디서, 왜, 어떻게 오게 됐는지 뱀의 출처에 대해서는 작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금발머리가 기차에서 내려 역 광장에 들어서는 것과 동시에, 뱀 떼 또한 화물칸에서 빠져 나와 도시 구석구석으로 스며들며 도시를 일대 공포와 혼란 속으로 빠트린다. 여기서 뱀 떼의 출몰은 금발머리와 같이 도시로 흘러들어오는 외지인들에 대한 은유로 읽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중국사회는 급속한 현대화, 도시화 열풍이 불던 시기로 성공과 부를 열망하며 무작정 도시로 이동해오는 외지인들이 많았다. 그들은 도시에 편입하고 도시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도시인들의 냉대, 배척과 소외를 감내해야만 했으며 결국 도시를 떠나야만 했다. 금발머리의 경우가 바로 이를 말해준다. 뱀 떼 또한 도시로 몰려들었다가 사람들에게 의해 밟히고, 찢기고, 살상을 당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읍지로 탈주한다. 이런 뱀 떼의 출몰과 처지가 금발머리와 기묘하게 중첩되며, 혐오와 기피의 대상으로 도륙당하고 축출되는 뱀은 화려한 허상과 꿈을 좇아 도시로 찾아 왔지만 도시로부터 배척받고 소외되며 영영 도시에 편입되지 못하는 외지인의 처지와 운명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량젠의 팔뚝에는 마치 분신처럼 따라다니는 뱀 문신이 새겨져 있고, 그는 점쟁이로부터 뱀한테 물리지 않도록 뱀을 조심하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는 그의 운명이 뱀과 불가역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복선 장치이다. 그는 화려한 여성편력으로 끊임없는 외도를 일삼고 술, 도박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자신의 주린 욕망을 채우는 불쌍한 영혼이다. 향락과 쾌락의 욕망을 좇는 과정에서 그는 가산을 탕진하고 무일푼 신세로 전락한다. 그럼에도 그는 성에 집착하고 탐닉한다. 특히 못 여성과 성적 방종을 일삼는 날이면 그는 뱀이 자신의 목을 감싸고 물려는 악몽에 시달린다. 악몽 속에서 그가 접하는 뱀의 형상은 자신의 목을 칭칭 동여매고 욕

죄는 모습이다. 이것은 뱀이 육체적 쾌락과 향락에 탐닉하게 만드는 성적 유혹과 타락의 상징임을 의미한다. 뱀한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점쟁이의 예언 또한 결국 성적 욕망의 유혹과 파멸을 경계하라는 일종의 계시와도 같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성적 방종과 쾌락을 일삼는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다리를 감싼 채 죽어있는 뱀의 사체를 발견하게 된다. 이는 량젠의 비극적 최후를 암시하며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뱀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뱀과의 질긴 숙명을 드러낸다. 이처럼 량젠에게 뱀은 그를 유혹과 파멸로 이끌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징적 기표가 된다.

량젠과 마찬가지로 뱀 문신을 갖고 있는 커위안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는 돈에 무섭게 집착하고,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라면 비윤리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다. 한 동네 친구였던 량젠마저 자살로 몰아넣고 평다린마저 망치로 쳐내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커위안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자 인간쓰레기, 사회악이다. 특히 커위안과 더웬이 채무자들을 만나러가서 그들을 겁주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요리가 있는데, 바로 뱀 요리이다. 쭈툰은 산 채로 뱀 요리를 먹는 커위안의 혐오스럽고 폭력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의 야만성과 잔인성을 부각시킨다. 이는 그가 공포와 혐오, 두려움의 대상으로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배척받는 부정적 존재임을 각인시킴과 동시에, 잔인무도하고 냉혹한 커위안의 존재가 타인을 고통과 파멸,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파괴와 죽음의 대명사가 됨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령옌은 성공에 대한 욕망과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인물로, 기꺼이 몸을 바쳐서라도 남자를 유혹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집념이 강한 인물이다. 이런 그녀에게서 영악하고 간사하며 유혹과 타락의 뱀의 부정적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그녀의 새 직장이 뱀 식당이란 사실과 그곳에서 그녀가 '살모사 아가씨(蝮蛇小姐)'라는 제2의 이름을 갖는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뱀이 탈피를 통해서 재생과 부활의 이미지를 갖는 것처럼, 살모사 아가씨로 변신하는 모습은 그녀가 이전의 기차역 여관 아가씨의 舊態를 벗어내고 상업화된 자본주의 사회 속 욕망의 화신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은유한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녀가 새천년을 앞둔 전야에 뱀을 목에 두르고 뱀과 물이일체가 되어 춤을 추는 장면이다. 이는 마치 '꽃뱀'의 문화적 코드를 연상시킨다. 팜프파탈 같은 치명적인 매력으로 남성들을 홀

리고 성공과 야망을 향해 질주해 나가는 그녀에게서 비상을 향한 악착같은 의지와 내면의 꿈틀대는 욕망을 보게 된다.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인물인 슈홍이 정신이상자가 된 결정적 원인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새천년맞이 복권이다. 주목할 것은 새천년 신세기의 시점이 바로 2001년 뱀의 해 辛巳年이라는 점이다. 많은 수의 알을 낳는 뱀의 생태학적 특성과 풍요, 번영의 상징적 이미지와 결부되면서, 신사년 신세기 복권은 바로 財運에 대한 욕망의 상징적 기표가 된다. 얽전하고 조신한 슈홍이 복권을 스무 장이나 구매하고 당첨된 경품을 얻기 위해 인파를 헤집고 저돌적으로 돌격하는 장면은 물질적 욕망에 종속된 슈홍의 세속적인 모습을 은유한다. 아울러 마치 블랙코미디를 연상시키는 복권 열풍과 하나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 서로를 짓밟고 갈아뭇개는 이수라장의 장면 이면에는 물질적 욕망을 부추기고 사람들을 탐욕과 이기주의로 모는 자본주의의 교묘한 권력과 지배가 은폐되어 있다. 결국 자본주의는 사람들 내면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욕망을 부추기고 조종해서, 사람들을 자본과 물질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다. 슈홍을 포함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비극적 파국으로 몰고 간 복권과 경품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얼룩진 상업화된 자본주의의 추악한 욕망을 은유하며, 욕망과 탐욕의 이수라장에서 충격으로 광인이 되는 슈홍의 말로는 물질 추구의 무한 경쟁 속에서 힘없이 밀려난 사회적 약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쭈통은 독특한 문화적 코드를 내포하고 있는 뱀의 이미지를 인물군상 개개인의 특수한 처지와 사회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시킴으로서, 작품 속에서 다양한 은유와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낸다. 즉 쭈통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장치로 뱀을 활용해서 인물들을 형상화해내고 아울러 동시대의 세속화되고 물질화된 사회의 모습을 형상화해내고 있다. 그렇다면 작품 속 다양한 은유와 상징의 총체인 뱀의 상징성은 한마디로 무엇으로 정의내릴 수 있을까? 우이친(吳義勤)은 「뱀의 형상은 도시 어디에나 존재하는 욕망을 상징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이상과 욕구치는 몽상에 대한 상징이다.(蛇這個形象, 一方面既是城市當中無所不在的欲望的象徵, 同時也是人們理想和升騰的夢想的象徵。)」¹⁸⁾라고 말한다. 한국 연구자도 비슷한 맥락에서 '도시 공간 속의 뱀의 이미지는 뱀의 존재이자 이 소설에서 욕

18) 蘇童、王宏圖 《蘇童、王宏圖對話錄》(蘇州, 蘇州大學出版社, 2003), 178쪽에서 재인용.

망의 폭발과 해방을 동시에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⁹⁾라고 평한다. 그렇다면 정작 작가 쑤통은 뱀이 갖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내릴까? 쑤통 또한 간단명료하게 ‘소설 속에서 뱀은 욕망을 상징한다’라고 말한다.²⁰⁾ 작가를 비롯하여 여러 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뱀의 상징성을 ‘욕망’으로 정의내리고 있듯이, 작품 분석에 의거한 결과 필자 또한 이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이다.

작품 속 인물들은 도시의 허상에 현혹되어 과도한 욕망의 날개 짓을 펼치며 스스로를 욕망의 굴레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중국에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들의 몰락과 비극적 운명은 바로 자신들의 욕망이 초래한 예고된 재앙이자 귀결이다. 특히 쑤통은 뱀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다른 글에서 「(뱀의) 반들거리는 미끄러운 형상은 사회에 달라붙을 수 없는 일종의 냉혹한 인심과 인성의 변이를 상징한다. (其光滑的形狀, 象徵着人對社會的無從把握, 也可以說是一種冷酷的人心, 一種變異的人性。)」²¹⁾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과도한 욕망이 초래한 뒤틀리고 왜곡된 인성적 결함에 대한 지적으로, 쑤통의 칼날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도시 공간 속 자본주의적 욕망이 야기한 병폐이다. 자본주의적 욕망이 야기한 무한경쟁과 물질만능주의, 향락과 쾌락주의, 과도한 욕심이 사람들의 결핍과 결여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금 끝없는 욕심과 탐욕, 이기주의를 낳았다. 그 과정에서 윤리와 도덕, 양심은 실종되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균열되고 해체된다. 결국 작품 속에서 뱀은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약자인 도시 빈민층들을 파멸과 타락으로 이끄는 욕망을 상징할 뿐 아니라, 추악한 욕망이 빚어낸 뒤틀리고 왜곡된 인성의 변이를 동시에 상징한다.

19) 박남용·이혁 〈쑤통 소설에 나타난 하층민 형상과 뱀의 이미지 - 「뱀이 왜 날까(蛇爲甚麻會飛)」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제39호, 113-114쪽.

20) <http://cafe.naver.com/mhdn/1147> (진중환 소설, 유쾌한 작가 — 중국 소설가 ‘쑤통’ 인터뷰) 참고.

21) 蘇童、徐穎 〈蘇童時代又回來了?〉, 汪政、何平 編 《蘇童研究資料》(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7), 143쪽.

IV. 나오며

이상으로 우리는 쑨통의 《蛇爲甚麻會飛》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작품에서 쑨통은 처음으로 창작 시선을 동시대의 현실로 돌려 목전의 사회현실을 직시하며, 다양한 인물군상을 통해서 욕망과 삶에 대해 성찰과 비판을 던지고 있다.

쑨통은 세기의 전환기에 급속도로 도시화, 자본주의화 되는 도시 공간 속 그늘진 한 켠에서 아등바등되며 악착같은 삶을 살아가는 빈민층의 현실을 직시한다. 도시에 대한 환상과 꿈을 좇아 도시로 흘러온 외지인과 도시 주변부에 살다 졸지에 신개발지역의 도시인으로 편입된 사람들, 이들 모두는 도시에서 소외된 계층이자 주변적 존재인 빈민층이다. 이들은 도시의 주류층에 편입되고 도시인으로 융화되기 위해 고전분투하고 발버둥 친다. 그러나 도시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의 진입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도시의 환상과 욕망을 좇지만 결국 좌절하고 몰락하는 이들의 비극적 말로를 쑨통은 마치 냉담한 듯 그려내지만, 애뜻하고 처연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도시의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점점 세속화되고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중국 사회 속에서, 쑨통은 사람들 내면을 파고들며 무한 증식하는 '욕망'이란 괴물을 발견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충족을 위해 약한 사람을 짓밟고 배척하고 소외시키는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욕망의 먹이 사슬 안에서도 강자와 약자는 엄연히 존재한다.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욕망하고 갖기 위해 약자의 것을 빼앗고, 약자가 비집고 들어올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욕망을 채우고 살아남기 위해 빈민층 약자들 또한 사력을 다해 고군분투한다. 성공과 부를 향한 욕망 충족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당해도 영악하고 이기적이어야 하며, 심지어 남에게 위해를 가해서라도 내 욕망을 충족해야 하는 현실이다. 채우고 채워도 끝없이 허기진 욕망의 굴레, 사람들은 세속화된 도시 공간 속에서 자신들이 몰락되고 소외되는지도 모른 채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 이처럼 쑨통이 그려내는 도시 공간의 현실과 모습은 어둡고 우울하다. 그 공간에는 욕망으로 인해 좌절하고 몰락하고, 급기야는 욕망으로 인해 왜곡되고 변이된 인성적 결함을 갖는 변종이 있을 뿐이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도시 빈민층의 삶 구석구석을 들춰내고 그들의 상처 입은 내면과 아픔까지도 천착해내는 쑨통의 섬세한 감성과 욕망의 병폐를 꿰뚫는 작가의

예리한 통찰력을 느낄 수 있다. 작품 속 도시 빈민층의 사실적인 모습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하층민들에 대한 작가의 연민이자 사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다. 특히 세속적 욕망 안에 매몰되어 있고 이로 인해 뒤틀리고 왜곡된 인성의 결함과 인간성의 상실을 보이는 인물군상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실상이기도 하다. 욕망이란 괴물은 파리를 뜯 뱀처럼 우리 내면에서 끝없는 욕망과 탐욕을 부추긴다. 제어되지 못한 욕망은 타인은 물론 스스로를 자멸케 할 뿐이다. 쭈통은 우리에게 끝없는 욕망과 탐욕에 대한 제어와 경고를 하고 있다. 스스로의 욕망과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욕망의 포로이자 노예가 될 것이고, 추악하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점철된 이 도시는 결국 수많은 욕망의 변종들을 잉태하고 탄생시킬 것이다.

【參考文獻】

- 蘇童《蛇爲甚麻會飛》昆明，雲南人民出版社，2002.
- 김지연 옮김《뱀이 어떻게 날 수 있지》서울，문학동네，2002.
- 이어령 책임편집《문화로 읽는 십이지신 이야기 — 뱀》서울，열림원，2011.
- 손진희《뱀의 상징적 의미와 꿈에 나타난 뱀의 의미》협성대학교 학위논문，2010.
- 정중석《쭈통 소설 연구: 하층민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 퇴폐미학적 접근》한국외국어대학교 학위논문，2015.
- 蘇童、王宏圖《蘇童、王宏圖對話錄》蘇州，蘇州大學出版社，2003.
- 蘇童、徐穎〈蘇童時代又回來了?〉，汪政、何平 編《蘇童研究資料》天津，天津人民出版社，2007.
- 張學昕〈在現實的空間尋求精神的靈動—讀蘇童長篇小說《蛇爲甚麻會飛》〉，汪政、何平 編《蘇童研究資料》，天津，天津人民出版社，2007.
- 周新民、蘇童〈打開人性的皺折—蘇童訪談錄〉，汪政、何平 編《蘇童研究資料》天津，天津人民出版社，2007.
- 蘇童、譚嘉〈作家蘇童談寫作〉，汪政、何平 編《蘇童研究資料》天津，天津人民出版社，2007.
- 박남용·이혁〈쭈통 소설에 나타난 하층민 형상과 뱀의 이미지 — 「뱀이 왜 날까(蛇爲甚麻會飛)」를 중심으로〉，《외국문학연구》제39호，2010.
- 정중석〈쭈통 소설에 나타난 규범서사에 대한 저항 고찰〉，《중국현대문학》제78호，2016.

<http://cafe.naver.com/mhdn/1147> 진중한 소설, 유쾌한 작가 — 중국 소설가 ‘쭈퉁’ 인터뷰.

<http://www.rcgus.com/witkid2013/1293751.html>

http://blog.sina.com.cn/s/blog_6e3914e60101c8qi.html

【中文提要】

最近曾經一向擅長寫歷史題材并被譽為是“新歷史小說干將”的蘇童，到了2000年代將目光轉向了現實，直面慘淡人生，創作了一種真正的現實主義作品。在2002年發表的《蛇為甚麻會飛》這部現實題材的新長篇作品中，蘇童塑造了一群被社會拋棄的下層城市貧民的形象。本文以蘇童的《蛇為甚麻會飛》作為研究對象，通過作品中的一群人物的欲望以及挫折，具體考察了該作品中所描寫的當時中國底層人艱辛的生存環境和內心受到的傷害。

這部小說的主要背景是火車站，以火車站為中心出現了一群人物。其中代表人物有金發女孩、冷燕、修紅、克淵和梁堅等等。蘇童談到，金發女孩、冷燕、修紅三位女性都是被社會拋棄的人，却又都在拼命地非常艱難地貼近時代，她們在生活鞭子的催打下，東奔西竄，却沒有任何目標。金發女孩是個陶醉于城市的幻想，為了夢想的實現和成功而遷移來的外地人。冷燕是火車站廣場旅館的服務小姐，她很貪心，為了獲得可憐的生活待遇的提高和找到新工作不惜出賣肉體，并把這看成是某種成功。修紅也是火車站廣場旅館的小姐，跟冷燕相比，她非常單純、朴素。不過，她迷上了彩票，在摸彩時差點被瘋狂的人流踩死，結果失去了理性而變成了一個狂人。克淵是一個邊緣人物，是我們通常所說的人渣，他是高利貸討債公司的打手。梁堅風流倜儻，吃喝嫖賭樣樣都來，最後却被債務逼得跳了世紀大鐘。小說如此盡力地凸現了一群人物的欲望和渴求。除此之外，還值得我們關注的是作品裏出現的“蛇”這個形象。蘇童用“蛇”這個形象來象徵城市當中無所不在的欲望，象徵底層人要向上跳躍、飛越的欲望，同時還象徵人性的扭曲。

【主題語】

《뱀이 어떻게 날 수 있지》, 도시 빈민층, 욕망의 분투, 좌절, 뱀의 상징

《蛇为甚麻会飞》, 下层城市贫民, 升腾的欲望, 挫折, 蛇的象徵

Why does the snake wish to fly, The urban poor, The struggle for desire,
Frustration, The symbol of the snake

투고일: 2016. 10. 15 / 심사일: 2016. 10. 25 ~ 11. 10 / 게재확정일: 2016. 11. 15